

# LaTeX의 보급을 위한 나의 제안

김병룡

## 차례

차례	1
0.1 구조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툴의 중요성 . . . . .	2

### 요약

L<sup>A</sup>T<sub>E</sub>X는 빼어난 조판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로는 이전까지는 설치의 어려움이었고, 또한 많은 명령문과 환경들로 인해서 요즘같이 바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배워야 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기저 소수의 mania층을 형성하면서 명맥을 유지하지 않거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를 정말로 활성화하고 보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사람이 무슨 일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필요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의 경우는 그리 필요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간단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아래아한글이나 워드를 쓰면 된다. 굳히 어려운 명령문이나 기타 여러 것들을 배워서 이런일들을 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L<sup>A</sup>T<sub>E</sub>X이 최소한 구조적인 문서를 만들고, 또한 미려한 조판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써주면 좋을것 같다.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 필요하게 할려면 그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일이 필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 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씩 하나씩 쓰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mania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일을 만들수 있을까?

## 0.1 구조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툴의 중요성

구조적인 문서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공문서들이나 가장 간단한 article 들의 prereport등도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아래아 한글등의 프로그램에 잠식되어 있다. 하지만 한글등의 프로그램이 정말로 편리하지 만은 않다. 구조적 문서작업을 하다보면 쓸때 없이 많이 차지하는 용량도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쉽게 DB와 연결이 쉽지 않다. 그저 단순히 몇개의 새로운 내용만 집어 넣으면 끝난일을 많은 hardware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DB와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다. 물론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은 template라는 것을 제공해서 이러한 것을 감추려 하지만 이것도 그리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우선 맘에 들지를 않는다. article같은 격식있는 문서를 만들고 싶은데 너무나 초랭이 방정값고, 글꼴또한 일반 개인이 고르다 보니 역시 맘에 들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L<sup>A</sup>T<sub>E</sub>X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일전에 제가 몇가지의 시도들을 해보았던 것같이 사전만들기등과 이번에 이글을 쓰고 있는 곳등에서와 같이 WebTeX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주 최소한의 학습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어여쁜 문서를 만들수 있다고 하면 그 누구 하나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다.

능력없어서 그저 한줄의 code를 가지고 몇일을 고민해가면서 만들기를 하다 보니,쉽지안은 않은 것들이였지만 충분히 이런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선에 이일을 그만 하려고 한다. 우리 KTUG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